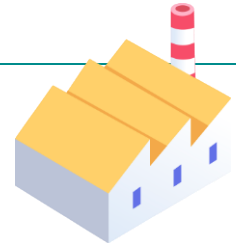


공기업 통폐합과 25조원 선급금

유틸리티 Weekly | 2026.09.04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yhyun@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0.2% 하회했다. 2일 증가 기준 WTI 92.2달러/배럴(WoW +10.4%), 미국 천연가스 3.0달러/mmbtu(+4.9%), 아시아 LNG 현물 23.8달러/mmbtu(+3.5%), 호주산 유연탄 146.6달러/톤(+11.7%), 원/달러 환율 1,358.6원(-1.9%)을 기록했다. 민간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지역별 SMP 외에 특별한 악재가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9월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9.2% 상승했고 SMP도 일별 평균 165원/kWh 내외로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과거 유가 흐름과 최근 환율 강세를 감안하면 8~9월 고점 형성 후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JKM이 mmbtu당 20달러 초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 중동 분쟁으로 한국가스공사의 LNG 현물 조달 비중이 증가한 점에서 LNG 연료비단가는 kWh당 160원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겨울철 성수기를 대비한 천연가스 재고 확충 이슈까지 감안하면 연말까지 LNG 단가 및 SMP 강세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가 하나로 통합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통합된다. 5개 발전자회사의 단일법인화(가칭 한국발전)로 투자여력 확보, 연료 및 정비자재 공동구매, 중북인력 효율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석유 비축 및 탐사개발 기능을 한국가스공사와의 통합 공사(가칭 에너지자원공사)에 이관할 예정이며 한국석유공사의 재무상향(안전자본잠식)을 감안하여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통합은 예상되는 변화가 크지 않지만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향후 통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유상증자 가능성 및 규모에 관심이 필요하다.
- 한국전력이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전기요금 선납을 받는 방안이 언급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으로 5년치 전기요금에 해당된다. 인프라 구축 지연의 원인이 자금 부족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있어 사채발행 외적인 수단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단기 자금 조달과 투자비 확대가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가스공사 또는 지역난방공사처럼 적정투자보수가 보장되는 시스템이라면 Capex 증가를 중립 이상의 소식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한국전력은 명백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한국전력 현금 출자는 5,000억원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사채발행한도 조건 충족에 미치지 못하는 기여로 판단되며 전기요금 인상이 아닌 출자를 선택한 점에서 향후 실적 정상화를 통한 재무 안정화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감안하면 당분간 긍정적 소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별 SMP 제도를 통한 비용 보전 금액이 요금 할인 규모 2.8조원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금출자 외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3,500억원이 예산에 추가되었다. 사실상의 재정정책을 한국전력이 대신해왔다는 점에서 타당한 예상 편성으로 판단된다.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기조가 앞으로 유지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5) 가격은 2일 증가 기준 29,450원으로 전주대비 변동 없음, YTD 183.2%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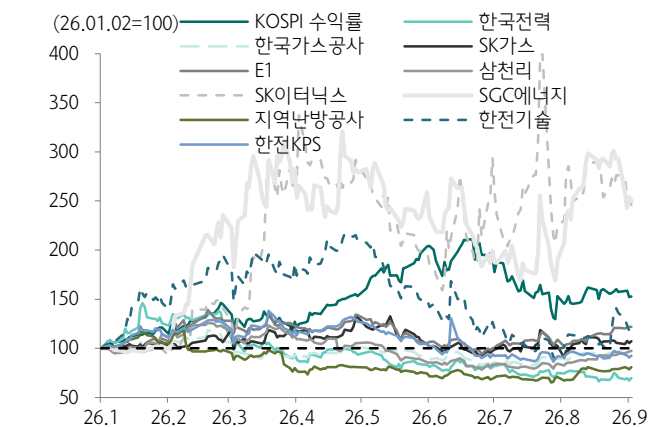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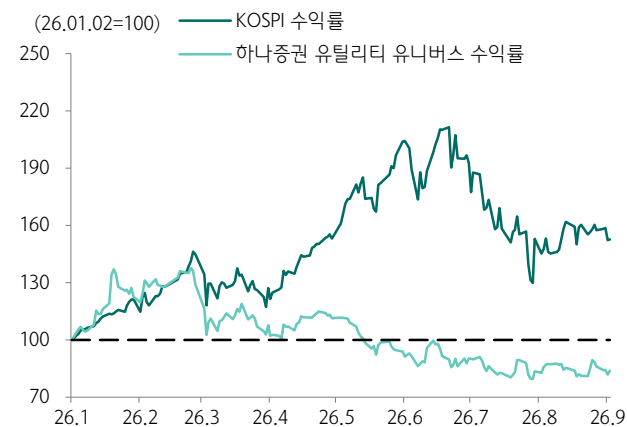
종목 코멘트

- 한국전력: 25조원 선급금 수취가 현실화되면 매출 시점에 점진적으로 인식. 영업이익에 단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님
-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와 통합 가정 시 환율, 원자재 가격 변화로 인한 평가손익 영향력 확대. 순이익 안정성 훼손 가능
- SGC에너지: 최근 주가 약세는 8월 중 AI DC 사업 진척 사안 발표를 기대했던 모습. 같은 맥락에서 계약 확인 시 반등 예상

주가동향

종목	주간 절대수익률(%)					주간 수급동향(순매수대금, 억원)		
	종가(9/3)	1W	2W	3W	4W	기관	외국인	개인
코스피	6,579.48	(4.8)	(4.0)	(3.4)	4.5	(44,579)	(37,767)	1,241
한국전력	32,450	(4.4)	2.0	(2.0)	(9.7)	(357)	(333)	666
한국가스공사	37,700	2.2	3.7	5.0	8.5	17	34	(52)
SK가스	234,000	1.5	2.0	2.6	6.4	29	(29)	(1)
E1	98,400	1.1	5.6	14.4	16.0	2	9	(11)
삼천리	136,500	4.3	4.7	11.2	13.9	10	(3)	(6)
SK이터닉스	49,700	(10.9)	(11.3)	(13.0)	(9.6)	(53)	(190)	245
SGC에너지	53,400	(14.7)	(14.6)	(13.6)	8.0	(55)	95	(34)
지역난방공사	76,500	2.5	4.9	2.5	19.0	4	(5)	0
한전기술	107,400	(15.0)	14.0	7.6	5.1	43	(308)	260
한전KPS	45,300	(3.4)	0.8	(1.9)	(4.0)	10	(33)	22

섹터 / 종목별 수익률



주요 뉴스

1. 정부, 발전5사 및 석유·가스공사 통합 확정- <https://bulky.kr/uWou7D>

- 정부의 현재 공공기관 중 109개 감축 추진.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합해 단일법인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 예정
- 발전5사를 통합 단일법인에 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를 담당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폐지를 담당 정의로운전환본부 설치
- 통합 공사로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 이관.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

2. 한전, 삼성·SK하이닉스에 전기료 25조 선납 제안...“첨단산업 전력망 투자 대응” - <https://bulky.kr/E7BeS2V>

- 한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각 20조원, 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 제안. 국고채 금리에 0.15%p 가산한 금리 적용 방안 제시
- 대규모 전력망 건설 및 내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 5배에서 다시 2배로 정상화되는 한전채 발행 한도 대응 목적
- 현재 한전과 양사는 실무 협의 진행 중. 양사는 적용 금리의 회사채 금리 수준 상향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선납 규모 협의 중

3. 기후부 내년 예산 25.7조 편성 ‘최대 규모’...첨단산업·E 대전환에 ‘집중’ - <https://bulky.kr/5fFGgKc>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7,319억원으로 편성. 올해 대비 18.3% 늘어난 수치
-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 및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
- 전력, 용수에 각각 1조 5,489억원, 3,862억원 편성.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133.1% 증가한 1조 5,108억원

4. 전력망 직종 노임 3년 새 10% 가까이 상승'...인건비 상승에 업계 부담 가중 - <https://bully.kr/1n6bnZY>

- 송전·변전 등 전력망 관련 전기공사 직종의 시중노임단가 상승. 송전·활선 등 계통 직종과 내선 직종 간의 임금 격차 확대
- 송전전공의 일급은 64만 5,607원으로 약 8.0% 상승. 반면 내선전공의 일급은 27만 6,108원으로 약 2.2% 상승에 그침
- 송전전공과 내선전공의 일급 격차는 2024년 1월 대비 2026년 9월 4만 2,043원까지 확대. 배수는 2.21배에서 2.34배로 상승

5. “재생E 100GW의 시대”...모니터링 제어 의무 90kW→20kW로 확대 - <https://bully.kr/6teaFbP>

- 내년부터 모니터링·제어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기존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 확대
-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소규모 발전설비까지 실시간 관리 범위를 넓혀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
- 모니터링·제어 장비가 구축 시 계통운영자가 발전설비의 발전량과 운전 상태의 실시간 파악 및 이상 상황 시 원격 조정 가능

6. 전기료 10% 낮추면 기업 움직일까...메가프로젝트 ‘입지 방정식’ - <https://bully.kr/DwGtQkH>

-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안은 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kWh당 약 13~18원 낮춰 최대 10% 차이 발생
- 녹색에너지전력연구조 설문에 따르면 최대 10% 안팎의 차등요금만으로는 기업의 입지 결정을 바꾸기 어렵다는 인식 우세
- 전력 가격 및 안정성이 반도체·데이터센터 입지에서 핵심 조건임은 분명. 다만 최종 입지 결정의 차별화 요소는 아님을 확인

7. 전력망 병목 뚫는 연료전지...두산퓨얼셀, 美 AI 시장 첫발 - <https://bully.kr/FsLEHjd>

- 두산퓨얼셀은 두산의 미국 자회사 하이엑시엄과 5,014억원 규모 PAFC 공급계약 체결. 2028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납품
- 해당 계약은 하이엑시엄이 미국 데이터센터용 연료전지를 수주하며 성사. 두산퓨얼셀은 이를 통해 미국 전력시장에 처음 진출
- 두산퓨얼셀은 800MW 이상의 설치실적 보유. 하이엑시엄 등 국내외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영업과 LTSA 등을 수행

8.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95.3GW...태양광이 낮 피크 25% 감당 - <https://bully.kr/AwhyDTs>

-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8월 1주차 평일 기준 95.3GW로. 태양광이 자가용을 포함 낮 시간대 총수요의 25% 공급
- 8월 3일 오후 3시 총수요 97.1GW 중 17.4GW를 시장외 태양광으로 충당. 전력시장 공급이 필요한 시장수요 79.7GW로 감소
- 태양광은 냉방수요가 높은 낮 시간대에 수요를 낮추고 시장 태양광으로 공급능력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 수급 운영에 기여

9. SK이터닉스,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 상업운전 개시 - <https://bully.kr/DPWXVkw>

- SK이터닉스가 발전용량 99MW 규모의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상업운전 시작. 육상풍력 상업발전 능력을 257MW로 확대
-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는 단일 육상풍력 발전소 중 최대 규모인 99MW. 연간 약 14만 6,000MWh 전력 생산 가능
- SK이터닉스는 포항 죽장(72MW) 육상풍력 개발 중. 해상풍력은 신안 우이(390MW)와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250MW) 추진 중

10. 9월 발전용 가스요금 9.2% ↑...에너지 공기업 ‘초비상’ - <https://bully.kr/AasUrYO>

- 다음달 일반발전사업자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 CJ당 2만 4,806원으로 책정. 이번 달 2만 2,726원 대비 9.2% 상승
- 발전용 가스요금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 올해 1월 1만 6,323원 대비 52.0% 상승했으며 이 달에도 10.7% 상승
-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이 국내 가스요금에 반영되는 중. SMP 상승으로 이어지며 한전 전력구입비 부담 상승 전망

매크로 지표 / 판매실적

매크로 지표 / 원자재 가격 추이

	단위	9월 2일	1W	1M	3M	1Y	YTD	1W(%)	1M(%)	3M(%)	1Y(%)	YTD(%)
원/달러 환율	원	1,358.6	1,385.2	1,442.9	1,534.8	1,395.8	1,440.6	(1.9)	(5.8)	(11.5)	(2.7)	(5.7)
달러 인덱스	Pt	99.6	99.1	99.8	99.5	98.4	98.3	0.4	(0.2)	0.1	1.2	1.3
WTI	달러/배럴	92.2	83.5	86.2	99.8	66.0	57.3	10.4	7.0	(7.6)	39.7	60.9
Brent	달러/배럴	95.6	87.8	90.1	97.9	69.2	60.9	8.8	6.0	(2.4)	38.1	57.0
Dubai	달러/배럴	99.4	91.3	83.0	95.7	71.4	60.9	8.9	19.8	3.9	39.2	63.3
Bunker	달러/톤	628.5	608.3	554.5	676.2	404.4	341.8	3.3	13.3	(7.1)	55.4	83.9
천연가스(HH)	달러/MMBtu	3.0	2.9	2.8	3.3	3.0	3.7	4.9	7.5	(8.0)	0.3	(18.7)
아시아 LNG	달러/MMBtu	23.8	23.0	21.5	18.8	11.2	9.6	3.5	10.8	26.2	111.4	147.5
유연탄(호주)	달러/톤	146.6	131.3	130.2	146.3	108.8	107.5	11.7	12.6	0.2	34.7	36.4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판매실적 추이

한국전력

		2026년 6월	2025년 6월	YoY(%)	2026년 5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 (GWh)	주택용	6,617	6,454	2.5	6,061	9.2	40,582	40,098	1.2
	일반용	11,130	10,585	5.2	9,801	13.6	68,195	66,591	2.4
	산업용	22,675	23,155	(2.1)	22,387	1.3	136,160	139,252	(2.2)
	기타	2,847	2,812	1.2	2,682	6.1	21,733	22,420	(3.1)
	합계	43,269	43,006	0.6	40,931	5.7	266,671	268,360	(0.6)
판매금액 (억원)	주택용	10,311	9,964	3.5	9,143	12.8	63,588	62,360	2.0
	일반용	19,436	18,717	3.8	15,777	23.2	115,625	113,155	2.2
	산업용	42,790	43,874	(2.5)	37,099	15.3	243,748	249,585	(2.3)
	기타	3,262	3,213	1.5	2,930	11.3	24,088	24,510	(1.7)
	합계	75,799	75,768	0.0	64,948	16.7	447,049	449,610	(0.6)
판매단가 (원/kWh)	주택용	155.8	154.4	0.9	150.8	3.3	156.7	155.5	0.8
	일반용	174.6	176.8	(1.2)	161.0	8.5	169.6	169.9	(0.2)
	산업용	188.7	189.5	(0.4)	165.7	13.9	179.0	179.2	(0.1)
	기타	114.6	114.3	0.3	109.2	4.9	110.8	109.3	1.4
	평균	175.2	176.2	(0.6)	158.7	10.4	167.6	167.5	0.1

한국가스공사

		2026년 7월	2025년 7월	YoY(%)	2026년 6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천톤)	도시가스	1,020	938	8.7	1,051	(2.9)	11,895	11,837	0.5
	발전	1,210	1,316	(8.1)	1,136	6.5	9,793	9,312	5.2
	합계	2,230	2,254	(1.1)	2,187	2.0	21,688	21,149	2.5

지역난방공사

		2026년 7월	2025년 7월	YoY(%)	2026년 6월	MoM(%)	2026년 YTD	2025년 YTD	YoY(%)
판매량 (천Gcal, GWh)	열	543	534	1.7	494	9.9	9,433	9,746	(3.2)
	냉수	45	46	(2.2)	36	25.0	163	150	8.6
	전기	921	1,211	(23.9)	752	22.5	8,836	8,910	(0.8)

자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하나증권

일별 SMP 및 수요예측 추이 (육지 기준)

		8월 27일(목)	8월 28일(금)	8월 29일(토)	8월 30일(일)	8월 31일(월)	9월 1일(화)	9월 2일(수)
SMP(원/kWh)	최대	182.89	177.29	179.38	177.28	179.05	194.71	194.05
	최소	102.09	102.08	100.93	98.64	98.85	102.80	117.00
	가중평균	152.83	155.78	143.70	120.00	150.85	165.13	167.91
수요예측(MW)	최대	87,807	89,205	72,229	70,489	82,519	81,011	82,029
	최소	59,292	59,570	57,328	52,495	52,509	57,503	58,676
	가중평균	74,593	76,451	66,090	60,696	69,847	70,671	71,916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일별 전력수급실적 추이

	설비용량 (GW)	공급능력 (GW)	최대전력(GW)				최소전력(GW)		공급예비력 (GW)	공급예비율 (%)
			금년	전년	증가율(%)	시간대	금년	시간대		
8월 27일(목)	160.9	105.7	92.7	91.4	1.4	19시	64.0	05시	13.0	14.1
8월 28일(금)	160.9	107.2	90.5	91.7	(1.3)	15시	64.1	05시	16.7	18.4
8월 29일(토)	160.9	103.4	77.6	81.1	(4.4)	20시	61.3	05시	25.8	33.3
8월 30일(일)	160.9	103.3	75.6	78.2	(3.3)	20시	56.8	05시	27.7	36.7
8월 31일(월)	160.9	106.1	85.7	89.5	(4.3)	17시	56.5	04시	20.4	23.8
9월 1일(화)	160.9	104.5	84.7	87.1	(2.7)	17시	61.3	05시	19.7	23.3
9월 2일(수)	161.0	103.1	85.9	88.5	(3.0)	17시	61.6	04시	17.2	20.0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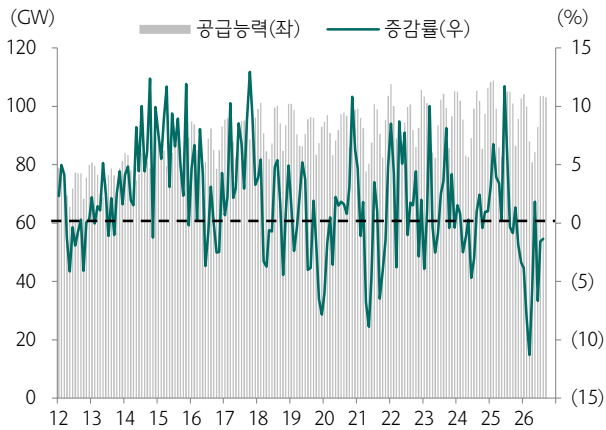
주간 기저발전 예방정비 계획 (9월 1주차)

석탄	당진	#6 : 8.31 - 12.21
	보령	
	신보령	
	삼천포	
	여수	
	영흥	#2 : 1.1 - 9.21 / #5 : 8.25 - 12.16
	태안	#8 : 8.29 - 9.1
	신서천	
	하동	#2 : 8.29 - 8.31
	삼척그린	#2 : 8.24 - 8.30
	북평	
	고성	
	강릉안인	
	삼척화력	
국내탄	동해	#1 : 8.25 - 11.16 / #2 : 8.25 - 11.14
원자력	고리	#3 : '24.9.28 - '26.12.31 / #4 : '25.8.6 - '26.12.31
	신고리	
	한빛	#1 : '25.12.9 - '27.4.12
	한울	#4 : 8.22 - 9.11
	신한울	
	월성	#2 : '25.9.1 - '26.10.31 / #4 : '25.7.18 - '26.9.11
	신월성	
	새울	#1 : 7.2 - 8.26

자료: 전력거래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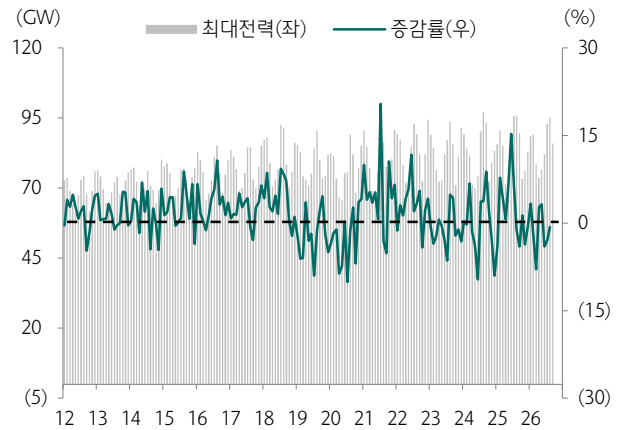
주요 차트

도표 1. 월별 공급능력 (9월 2일 최대수요 기준 YoY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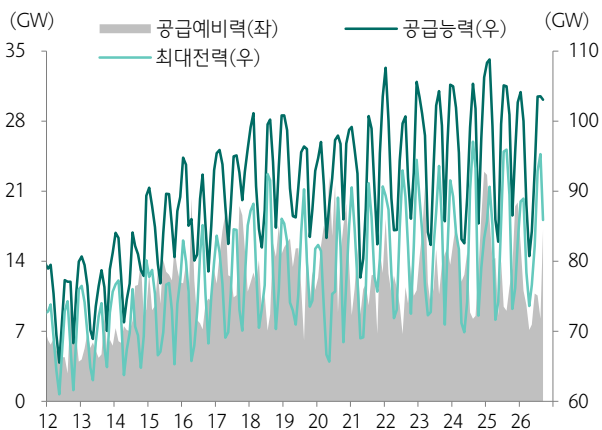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2. 월별 최대전력 (9월 2일 최대수요 기준 YoY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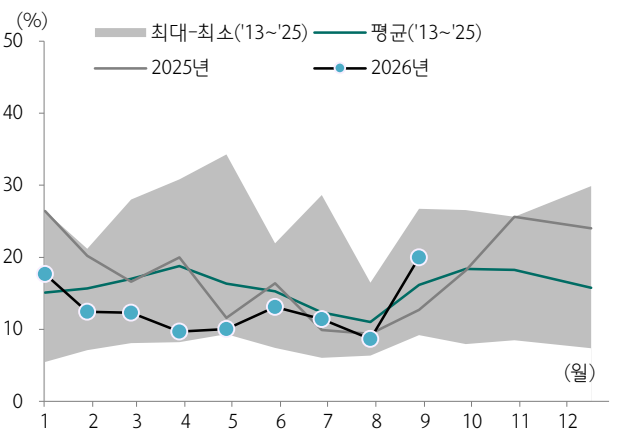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3. 월별 공급예비력 (9월 2일 최대수요 기준 YoY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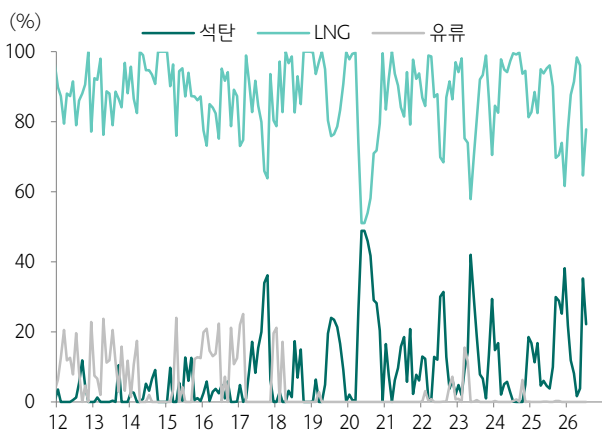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4. 월별 공급예비율 (9월 2일 최대수요 기준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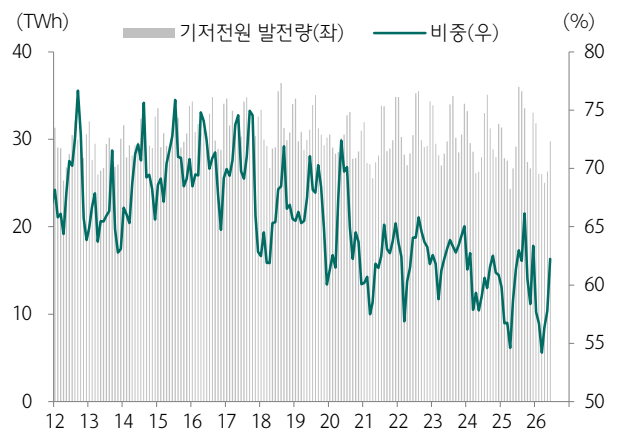
주: 최대전력일 기준.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5. 연료원별 SMP 결정비중 (7월 기저전원비중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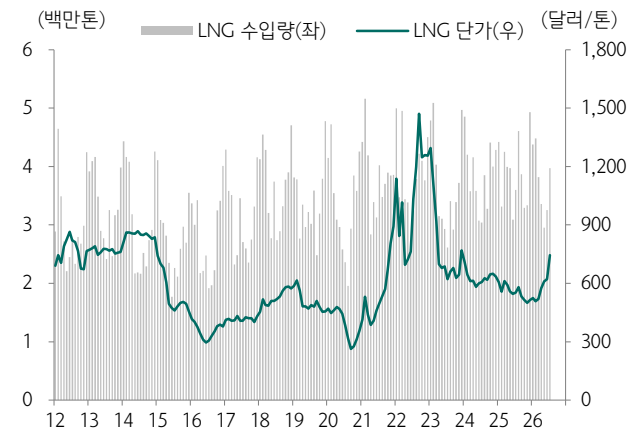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6. 기저발전량 비중 (6월 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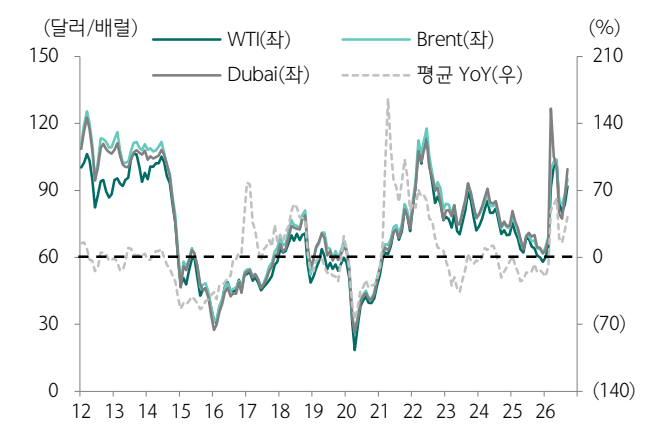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하나증권

도표 7. 국내 LNG 수입량/단가 (7월 YoY +10.3%/+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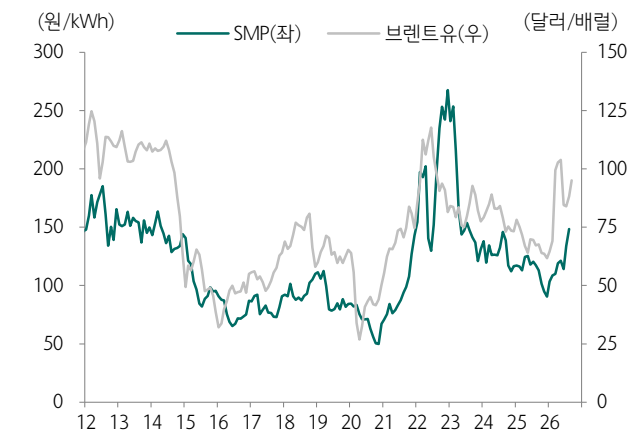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8. 국제유가 (9월 3대 유종 평균 YoY +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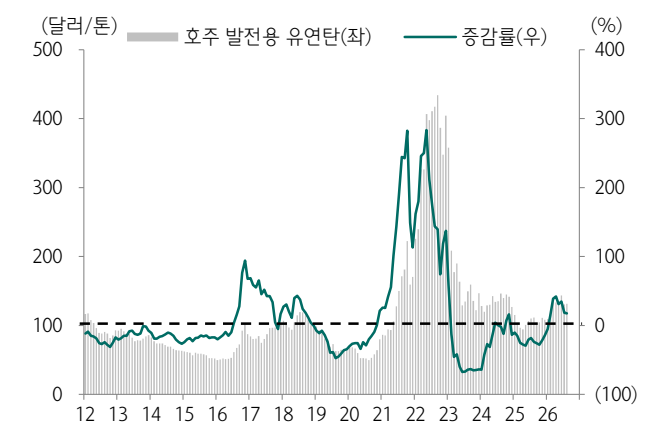
자료: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9. SMP와 국제유가 추이 (8월 SMP YoY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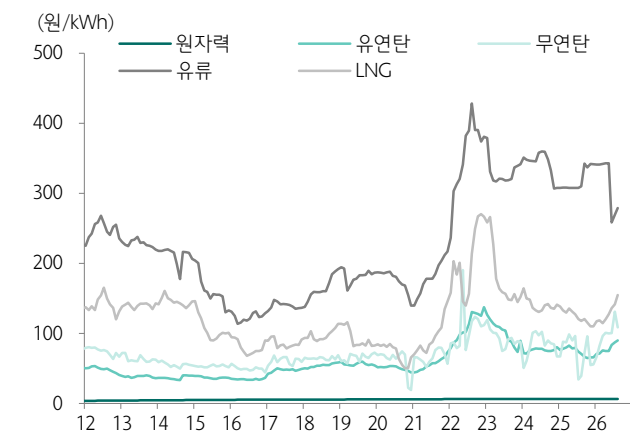
자료: EPSIS, Workspace, 하나증권

도표 10. 호주 발전용 유연탄 (8월 YoY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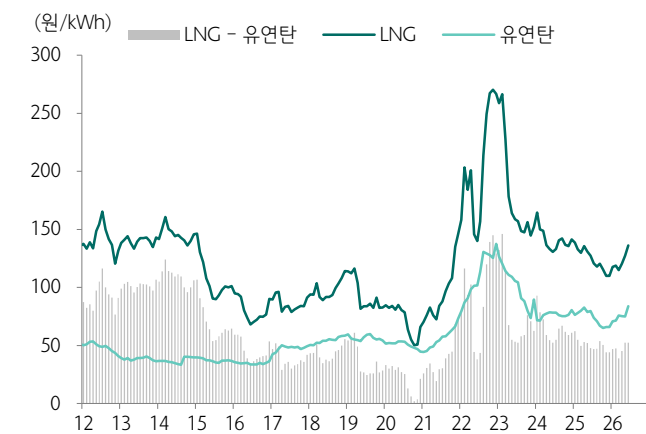
자료: 산업부, 하나증권

도표 11. 연료비단가 (8월 LNG YoY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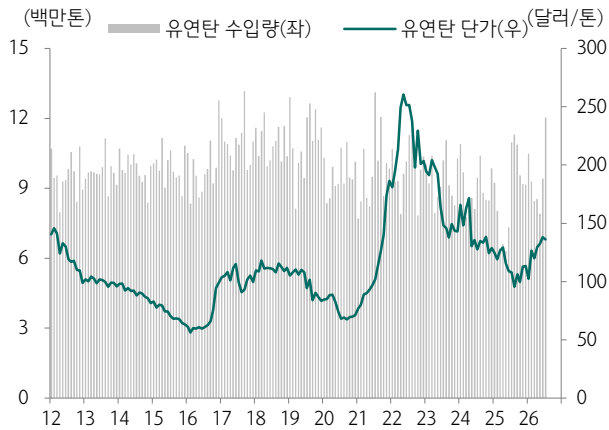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12. LNG/유연탄 연료비단가 격차 추이 (8월 65.02원/k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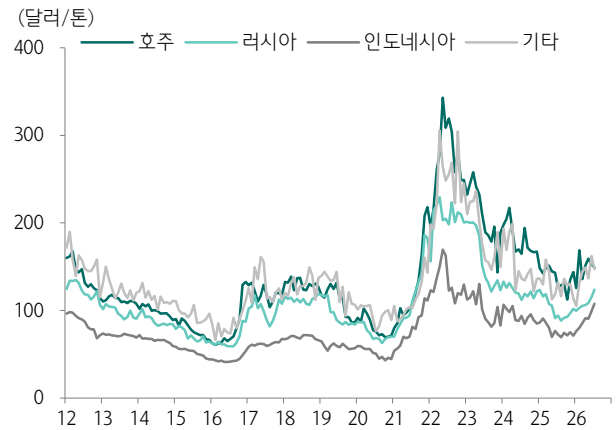
자료: EPSIS, 하나증권

도표 13. 국내 유연탄 수입량/단가 (7월 YoY +9.9%/+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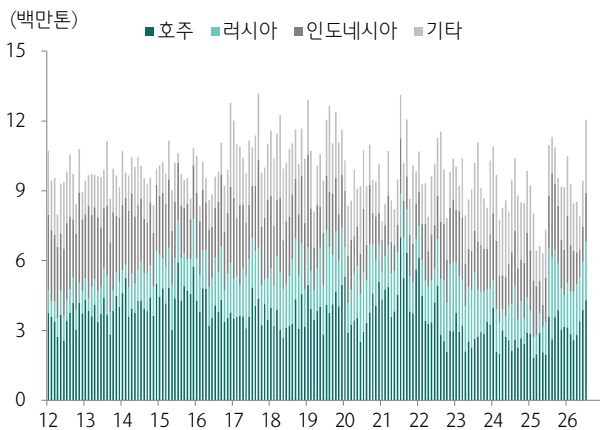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4. 지역별 유연탄 수입단가 (7월 호주 YoY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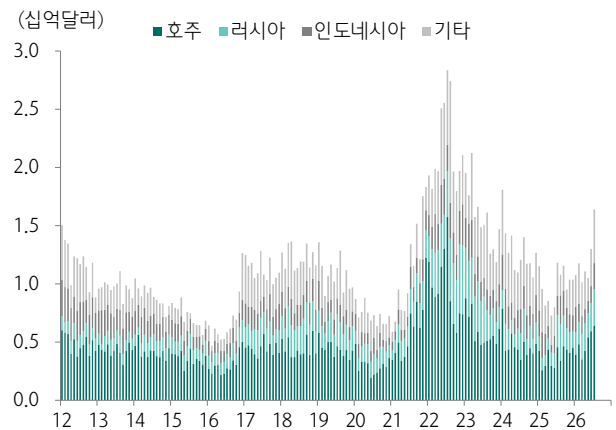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5. 지역별 유연탄 수입물량 (7월 호주 YoY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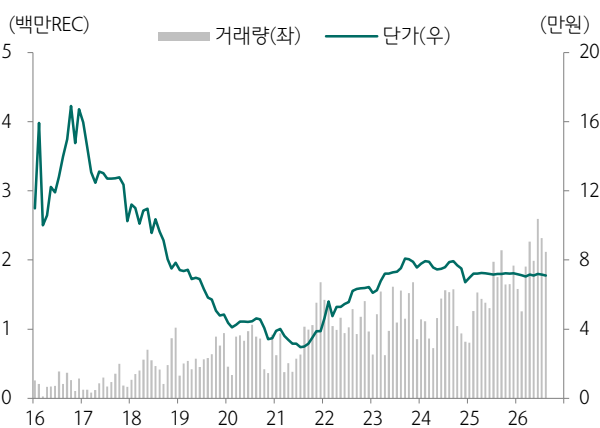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6. 지역별 유연탄 수입금액 (7월 호주 YoY +41.1%)



자료: 무역협회, 하나증권

도표 17. 현물시장 REC 거래량/단가 (8월 YoY +21.1%/-1.3%)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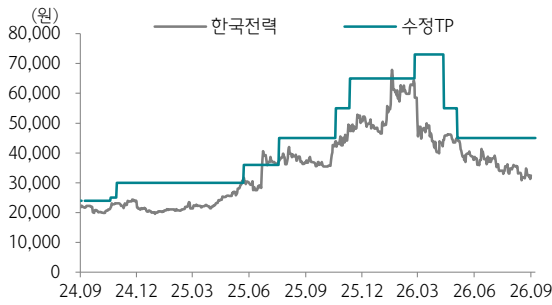
도표 18. 온실가스배출권 가격 추이 (KAU25)



자료: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한국전력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7.14	BUY	45,000		
26.5.7	Neutral	45,000	-14.64%	-2.11%
26.4.15	BUY	55,000	-17.38%	-15.73%
26.2.27	BUY	73,000	-37.81%	-30.27%
25.11.14	BUY	65,000	-16.11%	4.46%
25.10.22	BUY	55,000	-18.18%	-9.91%
25.7.22	BUY	45,000	-15.71%	-2.56%
25.5.26	BUY	36,000	-7.36%	12.78%
24.11.1	BUY	30,000	-24.37%	2.33%
24.10.22	BUY	25,000	-8.74%	-7.60%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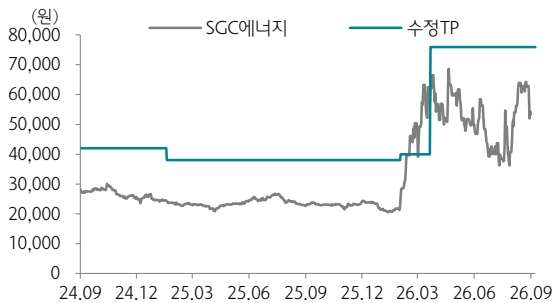
한국가스공사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4.10.18	BUY	55,000		
24.9.6	BUY	-	-	-
24.7.11	BUY	55,000	-18.21%	-3.09%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SGC에너지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3.24	BUY	76,000		
26.2.4	BUY	40,000	16.97%	58.25%
26.1.21	1년 경과		-	-
25.1.21	BUY	38,000	-38.41%	-29.61%
24.2.1	BUY	42,000	-39.03%	-28.33%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9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유재선)는 2026년 9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9%	1.81%	0.00%	100%

* 기준일: 2026년 08월 31일